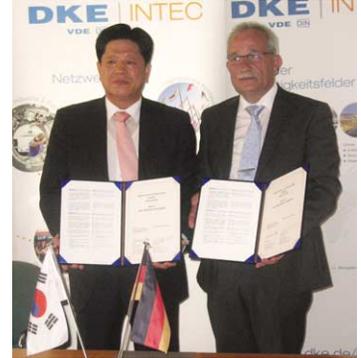


● 전기협회, DKE(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와 MOU 체결

– 전기설비기술기준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한 계기 마련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2일 독일 현지 DKE 회의실에서 전기협회 박천진 상근 부회장과 버나드 시스(Bernhard Thies) DKE 의장 등 양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한국전기규정(KEC) 개발 협력 ▲표준개발활동에 관한 지식 공유 ▲상호 관심사에 관한 정보의 무상 교환 ▲양 기관 간 연락관 임명 및 주요거점 역할 수행 ▲공통관심분야의 표준개발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내용에 합의했다.



박천진 상근부회장은 “유럽 최대의 민간단체표준기관인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독일의 선진화된 표준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양국 간 발전을 위한 계기와 초석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협회는 일본전기학회(JEA), 중국전력기업연합회(CEC), 슈나이더 일렉트릭, 에디슨전기협회(EED),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 등과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 전기협회, '제20차 KEPIC 정책위원회' 개최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3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섬유센터에서 정부, 산·학·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KEPIC 정책위원회'를 열었다.

6단계 사업(2011~2015년)이 시작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업무 현황과 2011년도 주요계획 등이 논의됐다.

논의에 앞서 진행된 위원장 선출에서는 이창건 현 위원장이 정책위원 만장일치로 6단계 KEPIC사업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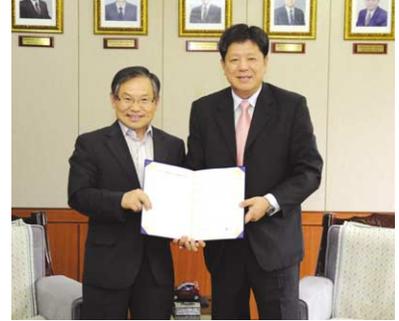


KEPIC정책위원회는 KEPIC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문위원회별 소관업무 범위 등을 결정하는 상설기구다.

● 전기협회, 전기연구원과 MOU 체결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와 한국전기연구원(원장 유태환)은 지난달 28일 국내 전기산업 전반에 관한 기술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 아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규정 제정에 관한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기협회 박천진 상근부회장과 전기연구원 유태환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규정(KEC) 제정에 관한 기술 협력 ▲산업화 기술의 발전 및 기술기준 선진화를 위한 공동 협력 ▲전기 설비분야 연구과제의 공동 발굴 및 수행 ▲양 기관 간 기술교류 증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기산업계를 대표하는 양 기관 간의 이번 협정체결은 국내 전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 전력기술교육원, 변전전기원 수료식 개최

배전활선 등 17개 과정에서 전기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대한전기협회 부설 전력기술교육원은 지난달 14일 변전전기원 2급 양성교육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전력기술교육원은 전기기능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기설비의 완벽 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5년 개원하여 전기 분야의 모든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변전전기원 교육과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 2011 KEPIC-Week 개최 안내

대한전기협회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전력산업계가 후원하는 '2011 KEPIC-Week' 를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제주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KEA

● 행사개요

- 주 제 : Advanced Standards & Global Partner!
- 일 시 : 2011. 8. 30(화) ~ 9. 2(금)
- 장 소 :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 행사내용 : 전기저널 8월호 28~35P 참조

